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은
www.ipcs21.com에서
항상 신속한 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Pocheon sinmun

돌, 백일/ 회갑, 고희연/ 각종 모임행사
용정웨딩홀 · 뷔페
Tel:031)533-4466 Fax:031)536-4466

【주간】1990년 1월 15일 창간 ☎ 031-542-1506~7
제372호 2007년 3월 30일 금요일

신설高 學生이 아파트 경비원 집단폭행

담배 피운다 훈계하자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
해당학교 상급기관 보고 않고 경미한 징계조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훈계하는 아파트 경비원 N(70세)씨와 K(65세)씨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박 모 군등 5명은 지난 19일 오후 8시경 학교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훈계한 아파트 경비원 N씨(70세)를 집단폭행했다.

경찰과 주민들에 의하면 올 3월에 개교한 S고등학교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비원 N씨가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고 훈계한 후 경비실로 들어가자 P군 등은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고 N씨를 놀리며 밖으로 유인했다.

이어 N씨와 동료 경비원 등 2명이 밖으로 나오자 P군 등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N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해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은 "놀려 주려고 경비실에 갔다가 경비원들이 야단치고 혼내 홧김에 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포천경찰서는 P군 등을 불러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혐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두 입건하기로 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 N씨와 K씨 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폭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과 경찰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범자인 P군 등 2명은 7일 사회봉사와 가담자인 학생 3명은 7일 교내봉사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군 등과 해당 학교측은 N씨 등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3월19일 사건이 발행한 후 20일 조사를 실시하고 21일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학생들의 징계는 학교 선도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휴식시간 혹은 점심시간 등에는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방과후에는 아파트 등 학교 주변에 대해 교사들의 순찰을 통해 학생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안모씨는 "10대 학생들이 70대 경비원들을 집단폭행 했는데도 학교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을 공경하지는 못할망정 폭행하는 일만은 없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리 김모씨는 "학생들이 어른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학교 당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진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신고처는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학교에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게시판(http://www.117.go.kr)을 참고하거나 여성 청소년계 (☎031)534-0118)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소흘읍 소재, 지난 3월에 개교한 신설고등학교 학생 5명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는데도 학교측이 상급기관에 뒤늦게 보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학교측을 비난하고 있다.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02월28일부터 2007년03월28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류재철 10,000원
- 군내면농업경영인회 704,500원
- 강옥자 늘봄화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원(자동이체)
- 이은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10,000원
-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 용아섬유(주) 박노설 전무이사 100,000원
- 신형숙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20,000원(자동이체)
-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김한성 회장외 회원일동 100,000원
  - -열린노래방 대표 김영철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 -샵노래방 대표 홍미자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극
  - -뉴욕 노래방 대표 윤광숙
  - -팝콘 노래방 대표 김진희
  - -MS노래방 대표 김한성
  - -퀸 노래방 대표 정수환
  - -초콜릿 노래방 대표 이민철
  - -2차노래방 대표 하춘자
  - -유행가노래방 대표 서형석
  - -둘리노래방 대표 김영찬
  - -코러스 노래방 대표 이재정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㉕
포천지역 국유지 및 市유지 실태

군부대 시유지 28필지 127만㎡ 무단점유
기초자료 확보 후 대부계약 등 재산권 확보

포천시가 지난해 5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80여일 동안 포천지역 주둔 군부대 무단점유 시유토지를 조사한 결과 총 28필지 127만㎡로 나타났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포천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면서 시유 토지를 수십년간 대부계약 체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시유토지 무단점유는 포천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지역을 개발할 때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군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기타 군부대에 의해 폐쇄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군부대 무단점유 시유토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무단점유 시유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군부대가 시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계약은 물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차후 군부대나 국방부에 대부계약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자치단체가 별도로 시유토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향후 시유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시 전체 면적은 826,475,233㎡이다.

포천시 통계에 의하면 국유지 전체 면적은 3만8천390필지에 167,196,469㎡로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재정경제부(4,960필지 4,811,257㎡), 건설교통부(21,502필지 34,111,490㎡), 산림청(1,342필지 52,264,914㎡), 정보통신부(15필지 7,672㎡), 국방부(9,075필지 71,812,411㎡), 관리청 미지정(1,496필지 4,188,725㎡) 등이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들 국유지는 1천96명에게 1,646필지 1,216,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년간 2억여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다.

또 포천시 소유 토지는 시 면적 2%에 해당되는 240필지에 148,000여㎡로 200명과 대부계약을 맺고 있으며 년간 대부료는 1억5천여만원을 받고있다.

포천시는 은익재산을 찾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산관리분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익재산 발굴

포천시는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포천시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자복구를 누락시키거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귀속되지 않은 은닉재산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은닉재산 발굴조사는 토지(임야)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기록원 보유 토지(임야) 조사부를 열람하고 토지관련 내부 전산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행정구역 개편당시 포천시로 귀속되지 않고 연천군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관인면 중리 123번지외 1필지 34,989㎡를 확인한 후 소유권을 이전조치 한 후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국방부가 임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1필지 14,579㎡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통한 재산증대 효과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시효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은익재산을 발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유지 관리 위치확인기 도입

포천시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980만원을 들여 기기(PDA 1대, TPC 1) 2대를 구입했다.

국공유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PDA와 TPC 기기를 활용하면 기기화면에 국공유지 관리청별로 구분한 색체가 표시되어 공무원이 현장에 곧바로 국공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기기 도입으로 국공유지 현장 확인 시간 단축은 물론 현장 무단점유 등의 불법 행위발견이 쉽다.

또 개략적인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했으나 측량절차가 생략되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www.samjistone.co.kr
건설자재용 석제품 및 대리석 시공 전문업체

삼지석재공업(주)은 "품질향상과 고객만족"의 기업이념으로
창업이래 양질의 석제품 생산과 완벽한 시공으로 국내 · 외
석재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와 완벽한 품질생산으로 미래의
석재문화를 창조하는데 그 중심에 우뚝 설 것을 약속합니다.

■연혁 • 1970. 03. 삼지석재 설립 • 1985.02. 대림산업(주) 우수업체 선정 • 1987. 09. 독립기념관 공로 표창(문화공보부 장관 표창) • 1991. 10. 청와대 신본관 석공사(대통령 감사패 표창)
• 1994. 06. 일본지사 설립 • 1997. 04. ISO 9002 · KSA 9002 인증 획득 • 2003. 03. 싱가폴 현지 법인 설립 • 2001. 1. 제38회 무역의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본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2-474 삼지빌딩 ■TEL. 02) 981-0027, 0028 ■FAX. 02) 982-3708, 9307 ■공장. 포천시 선단동 433-5 ■TEL. 031) 543-1541